

# “100만 광역도시 · 전주 대변혁 완성”

###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 민선 9기 개선 도전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100만 광역도시' 도약과 '피지컬 AI' 중심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전주의 판도를 바꾸는 대변혁을 완성하겠다고 민선 9기 개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더 큰 전주’로 행정통합을 비롯한 광역도시화를, ‘더 강한 경제’로 민선 8기의 성과를 이은 비약적 성장을, ‘더 행복한 시민’으로 더불어 잘 사는 전주를 향한 의지를 강하게 표했다.

우 예비후보는 26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지난 4년은 해묵은 난제를 과감히 풀어내며 멈춰있던 도시를 다시 움직이게 한 시간이었다”며 “민선9기는 ‘제대로 된’, ‘진짜 일’을 해 본 전주 시장이 전주의 청사진을 과감하게 실행하고 속도감 있게 완성해 나가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3중 소외를 우려하며 제3 금융 중심지 등 전주와 전북에 애정이 깊은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 정동영, 김운덕, 이성운 등 중랑감 있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완벽한 ‘원팀’을 이루어 전주 발전의 다시 없을 호기를 살리겠다고 강조했다.

핵심 비전으로는 행정통합을 통한 ‘100만 광역도시’ 완성을 전면에 내세웠다.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완주, 김제와의 통합을 본격화하고, 2028년 글로벌 MICE 복합단지를 비롯해

옛 대한방직 부지 등 4대 개발사업에 박차를 가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1조 8천억원 규모의 전주권 광역 교통망과 외곽순환도로를 조속히 착수해 수도권에 버금가는 인프라를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전주의 백년 먹거리를 책임질 강한 경제 구축 방안도 제시했다. 세계 경제의 패러다임인 ‘피지컬 AI’를 지역 산업에 접목해 30만 평 규모의 ‘피지컬 AI-밸리’를 대한민국 혁신 거점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탄소부합제 기반 방위산업 및 첨단 바이오 클러스터 구축과 함께 전통시장 환경 개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해 민생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방침이다.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글로벌 문화관광도시 실현도 약속했다. 후백제 역사와 전라감영 복원 등을 통해 역사 문화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덕진공원과 아중호수 등 4대 체류형 관광지 조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또한 한지와 비빔밥의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를 이끌어내 전주의 문화를 세계적인 브랜드로 키워나갈 예정이다.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밀착형 복지망 고도화와 대규모 국제 행사 유치 계획도 내놓았다. ‘전주함께라면’ 플랫폼 고도화와 생애 전주기 돌봄 확대로 출중한 복지 안전망을 짜고, 전



우범기 전주시장 예비후보가 '100만 광역도시' 도약과 '피지컬 AI' 중심의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해 전주의 판도를 바꾸는 대변혁을 완성하겠다고 민선9기 개선 도전을 공식 선언했다.

국 대회 규모의 파크골프장 증설 등 도시 전역을 정원도시로 가꾼다.

나아가 정부 및 전북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력해 ‘하계올림픽’을 반드시 유치하여 전주의 브랜드를 세계로 확장하겠다는 포부다.

우 예비후보는 지난 시정에 대한 뼈저린 자성과 함께 새로운 각오도 내비쳤다. 그는 종합경기장 개발 등 해묵은 난제를 푸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는 라 시민의 삶을 더 가까이서 챙기거나 정치권과 격의 없이 소통하는 ‘참 정치인’으로서의 자세가 부족했음을 겸허히 인정했다.

우 예비후보는 “중학교를 졸업 때까지 호롱불 밑에서 생활했던 절박한 초심으로 돌아가, 더 낮고 겸손한 자세로 전주 시민과 희로애락을 함께하겠다”며 “시정의 주인은 언제나 시민일”을 명심하고, 위대한 전주 시민과 함께 ‘내 삶을 바꾸는 전주 대변혁’을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지역 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전주 시장이 되겠다”며 “전주 시민과 함께, 오직 전주를 위해 다시 한번 뛰겠다”고 결의를 다졌다.

/권희성 기자

## 시민 참여 ‘우리동네 새단장’

### 전주시, 생활밀착형 환경정비 사업 본격 추진

전주시는 올해부터 시민과 함께 깨끗한 도시환경을 만들어가기 위한 생활환경 정비사업인 ‘우리동네 새단장’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우리동네 새단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와 연대를 기반으로 한 환경정비 활동으로, 지난해 경주 APEC 기간 주요 장소에 대한 쾌적한 정비를 성공적으로 주도했던 ‘대한민국 새단장’ 사업에서 출발했다.

중앙정부의 일회성 정비에서 벗어나 지역주민 주도의 상시 관리 체계를 전국에 확산 및 정착시키기 위해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하는 정책이다.

시는 이러한 정부 정책 방향에 발맞춰 △주민 주도 참여 확대 △지속적 관리 체계 구축 △취약지역 우선 정비를 핵심 추진 방향으로 설정하고, 35개 동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145개 단체, 약 2200명의 시민이 참여하는 ‘전주형 우리동네 새단장’ 운영모형을 구성했다.

이를 위해 시는 동별로 자체적으로 작성한 추진계획서를 종합·분석한 후 동별 특성에 따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했다.

5가지 유형은 △한옥마을 등 주요 관광지 포함 ‘관광·유동 인구형’ △대학가 및 구도심 등이 포함된 ‘원룸밀집 골목관리형’ △대규모 공동주택이 밀집된 ‘공동주택중심형’ △대규모 상가들이 밀집된 ‘상가혼재형’ △농촌지역이 포함된 ‘농촌형’이다.

이와 함께 시는 자발적인 환경정비 참여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전주시 직원 청소동호회 ‘전주반짝’을 운영하며 ‘줍깅’과 ‘취약지 정비’ 등 다양한 환경정화 활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특히 명절 전·후와 여름 휴가철 등 폐기물 발생량 급증 시기에는 자원봉사단체와 연계해 민관협력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하고, 불필요한 폐기물 배출 감소 캠페인도 온·오프라인으로 추진한다.

/권희성 기자

## 사단법인 더숲, 전주시 정원사 참여 환경정비 나서

사단법인 더숲은 26일 전주시 정원사 100명이 참여한 가운데 덕진 88공원(덕진동1가 688-5 일원)에서 환경정비를 실시했다.

이번 활동에는 역대 초록정원사 출신 전주 시민 60여 명을 비롯해 서원시니어 소속 초록정원관리사, 지구환경정원사, 덕진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중인 전주시 정원사들이 동참했다.

전주시 정원사들은 노거수 군락지 주변에 방치된 폐기물과 잡초 등을 제거하고, 공원 전반에 대한 환경정비를 실시하며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에 기여했다.

특히 이들은 88공원의 상임인 왕버들 노거수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

/권희성 기자

## 전주 전역 ‘정원도시’ 된다

###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앞두고 다채로운 정원 조성 추진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가 열리는 전주 곳곳에 시민과 기업, 기관과 함께 만든 아름답고 다채로운 정원들이 조성된다.

전주시는 5월 8일부터 12일까지 5일간 도시 전역에서 ‘한바탕 전주 정원마당’을 주제로 열리는 ‘2026 대한민국 전주정원산업박람회’를 앞두고 전주 전역을 정원도시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총사업비 20억원이 투입되는 올해 박람회에는 전주월드컵광장(10만㎡)에서 우수정원업체가 참여하는 정원산업전이 펼쳐지고, 덕진공원(7만㎡)에서는 다양한 정원 조성 주체가 참여하는 정원한마당이 전시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박람회는 지난해보다 행사장 규모가 2배로 확대되고, 조성되

는 정원도 기존 5곳에서 45곳으로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실제로 그간의 전주정원산업박람회 정원 조성은 월드컵광장을 중심으로 이뤄진 반면, 올해는 덕진공원을 비롯한 도시 전역으로 확대돼 전주시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정원도시가 된다.

대표적으로 시는 박람회에서 코리아가든쇼와 서울 우호정원, 시민참여정원 등 다양한 정원 조성 주체가 참여하는 테마형 정원을 선보여 정원문화 중심도시로 자리매김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덕진공원에는 한국 전통정원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10개 테마정원이 열린 광장과 산책로 일대에 새롭게 조성돼 방문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 공간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국립정원문화원과 전주시가 공



동 주관하는 코리아가든쇼의 경우 ‘기후변화 위기 · 한국 전통정원’을 주제로 이날 중 작품 공모를 거쳐 오는 4월 중 조성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 업무협약을 체결한 서울시 교류 우호정원은 ‘소요도(滄海粟·전주에서 서울을 거닐다)’라는 주제로 세계가 주목하는 K-컨텐츠를

모티브로,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 성곽의 한양도성을 형상화한 정원이 오는 4월 중 조성된다.

이와 함께 기업의 ESG 경영 실천 및 도심 속 녹색힐링공간을 함께 만드는 기업동행정원은 전북현대모터스와 포스코이앤씨, 대자인병원, 전북은행 등 4개 기업이 참여해 각각의 정원 조성을 통해 덕진공원의 경관을 한층 풍성하게 만들게 된다.

아울러 시민이 직접 기획하고 조성하는 시민참여정원의 경우 거점형과 분산형으로 나누어 도심 곳곳에 조성되며, 시민 중심의 자발적 정원문화 확산과 공동체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정원은 조경전문가와 초록정원사, 시민정원작가 등 지역 정원 인력과 협업해 기획부터 조성, 유지관리까지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특징으로, 시는 이를 통해 ‘보는 정원’을 넘어 ‘가꾸는 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정원해설프로그램 등 다양한 활동도 운영할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 전주시, 해빙기 맞아 대규모 건설 현장 안전 점검

전주시가 지반이 녹아내리는 해빙기를 맞아 대규모 건설 현장을 중심으로 강도 높은 안전 점검을 전개하는 등 해빙기 대비 안전을 기하고 있다.

시는 26일 김승수 시 건설안전국장과 재난안전과장·체육산업과장 등 관련 부서장들로 구성된 합동 점검반을 꾸려 주요 대형 공사 현장을 찾아 해빙기 대비 안전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점검은 해빙기 취약 시설인 대규모 건설 현장의 잠재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밀착형 안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것으로, △기차

촌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건설 현장 △실내체육관 건립 현장 △육상경기장·야구장 △효저동 복합커뮤니티센터 건설 현장 등 4곳에서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시는 각 방문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 및 해빙기 대비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시는 이번 점검 과정에서 도출된 위험 요소 중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도록 지도했으며, 정밀한 진단이 필요한 구간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수·보강 대책을 수립하도록 조치한 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어갈 방침이다.

/권희성 기자

**전주천을 살리시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마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km<sup>2</sup>,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슬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